

고립 해결 ‘관계 복지’...광산형 돌봄공동체 주목

‘1313이웃살림’으로 주민·기업·행정 돌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일상 회복·자조모임 연계
“살림 넘는 관계회복”...지속적 돌봄·일자리 확대



(6) 광주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관계를 회복하는 ‘상호돌봄 공동체’ 조성 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고립 예방과 일상 회복은 물론 돌봄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대표 사업인 ‘1313이웃살림’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주민 주도형 관계 기반 돌봄 사업이다. 가족 해체와 개인주의 확산, 고령화,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자 기존 행정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지역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실제로 광산구의 1인 가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17만3040세대 중 6만6975세대로, 전체의 38.7%를 차지한다.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빠르게 늘면서 사회적 단절과 우울, 고독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고립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판단 아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 중심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1313이웃살림’이라는 이름에는 사업

의 철학이 담겨 있다. 주민인 이웃지기 1명이 고립 위험 가구 3세대를 살피고, 이 가운데 1명에게 다시 이웃단짜 3명을 연결해 관계망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고립된 주민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관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평동·하남산단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선한기업100+’의 후원금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기준 후원금은 7억원에 달한다.

광산구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카드뉴스 형태로 사업 운영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간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도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웃지기들의 자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313공감소’도 운영하고 있다. 공감소에서는 활동 사례 공유와 전문가 슈퍼비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 소진을 예방한다. 힐링 워크숍과 카카오톡 운영방을 통한 사례 공유도 병행하고 있다.



1313이웃지기 자조모임에서 손마사지를 통해 고립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신창동 1313이웃지기 자조모임에서 생활형 체험활동인 원예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왔고, 현재는 두 사람 모두 마을 봉사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마을 곳곳에서는 다양한 자조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우산동에서는 ‘함께한끼’ 사업을 통해 나눔식당 4곳이 고립 가구와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만 464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정서적 돌봄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신흥동에서는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인 ‘장보GO 안부살피GO’와 소규모 요리 프로그램 ‘알콩달콩 요리교실’이 진행됐으며, 저장강박과 상실감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급속이의 봄 프로젝트’도 운영됐다.

이 같은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살림 대상자 301명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우울감은 26.8점에서 23.4점으로, 고립감은 23.4점에서 19점으로 감소했다.

고독사 위험도 조사에서는 고·중위험군 비율이 감소한 반면 저위험군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단기간 내 고립 위험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광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1313 마을돌봄코디’ 시범사업을 운영해 이웃살림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 12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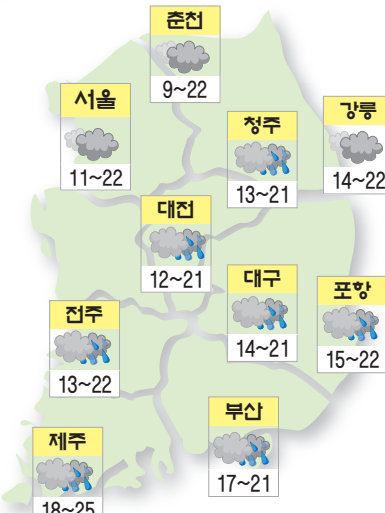
마을돌봄코디는 자조모임 운영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돌봄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광산구는 도산동·우산동·월곡동·수원동·신창동·첨단동 등 6개 공유공간을 거점으로 자조모임과 문화·식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기업 사회공헌 연계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광산형 돌봄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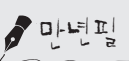
예보	06:42	달출	14:38
해질	17:52	달림	00:18



광주	15~21
목포	15~20
여수	19~20
순천	17~20
구례	15~21
광주	16~21
임도	17~21
흑산도	16~21
고흥	17~21
진도	17~21

목포	밀물 (고)	08:10 / 21:20
	썰물 (저)	03:09 / 14:09
여수	밀물 (고)	04:21 / 17:34
	썰물 (저)	00:59 / ---:---

“내 차에 모르는 사람이...”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치고, 이를 들린 차주에게 폭행까지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광주 서부경찰은 19일 오후 10시경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

A군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1개와 옷가지 2점 등을 훔친 혐의.

이후 차주 B씨는 뒷좌석에 낫선 A군을 발견하고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며 신고.

발각된 A군은 달아나라다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팔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져.

A군은 B씨의 제지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GGM 근로자위원 “민 시장, 노사갈등 해결 나서야”

단식 농성 직원 건강 우려...노사에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했다.

GGM 노사상생협의회의 근로자위원 5명은 19일 시의회 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광주특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직원들은 장기간 이어진 갈등으로 상당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갈등은 일반 기업과 다

른 GGM의 운영 구조와 노사관계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직원의 건강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회사와 노동조합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상생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나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 서해 해역, 불법 석유류 거래 ‘기승’

무자료 2665만 ℓ·226억 적발...면세유 불법 유통도

목포 등 전남 서해 해역에서 무자료 석유류와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무자료 석유류 적발 규모가 226억원을 넘어선 데다, 면세유 불법 유통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상 유류 관리에 경각심이 커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 4건을 적발했다.

적발 물량은 2665만2302 ℓ, 금액은

226억4200만원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7명 가운데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3명은 특별한 조치기 이뤄지지 않았다.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은 2023년 1건(2명 검거·13만4000 ℓ·1억2600만원)이 적발된 이후 한동안 확인되지 않다가 올해 다시 대규모로 적발됐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도 이어지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8월까지 관련 사건 2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으며,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물량은 약 1260 ℓ, 금액은 약 1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면세유 불법 유통은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해 해역의 적발 건수는 2021년 6건(7명 검거·3만6020 ℓ·4480만원)에서 2022년 28건(32명·13만5240 ℓ·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3건(3명·2900 ℓ·500만원), 2024년 0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2건(2명·220 ℓ·3만원)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급유선에서 기름을 빼돌리는 도유 범죄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급유선 도유 관련 적발량은 58만6505 ℓ, 금액은 약 7억639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남광주시장, 29~30일 ‘가을바다야축제·동행축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시장에서 수산물 반값 경매소와 문화공연, 전통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가 열린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따르면 오는 29일 ‘가을바다야축제’, 30일 ‘동행축제’가 남광주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29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고객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밤바다 포차 야시장이 운영된다. 오후 4시에는 시장 입구 미디어보드 현판식과 기념식이 열리고, 이

수산물 반값 경매소·문화공연·전통체험 등 다채
3만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페이백

어 상인회장 인사말과 내빈 축사가 진행된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노래교실 및 지역문화단체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총 15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시상금은 총 200만원이다. 오후 6시부터는 현장 게임을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 수산물을 반값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반

값 경매소가 열린다.

30일 동행축제에서는 고객 참여 이벤트와 함께 사랑송유치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 2시부터는 고객 노래자랑이 열려 15개 팀이 경연을 펼치며,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한 경품도 제공된다.

가래떡 썰기와 어린이 떡매치기, 먹거

리 만들기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역문화단체 경연대회에는 20여개 팀이 참가하며, 총 150만원의 시상금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수산물 반값 경매소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간 진행되는 고객 참여 이벤트는 남광주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신규 가입한 뒤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가입 고객도 첫 충전 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지급 장소는 남광주시장 광장 주차장이다. 일부 점포에서는 5~10% 할인 행사도 진행해 방문객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